



단국대 컴바이오 글로벌 전문인력양성 사업단 김성환 단장

“성공적인 사업운영으로 단국대의 미래 제시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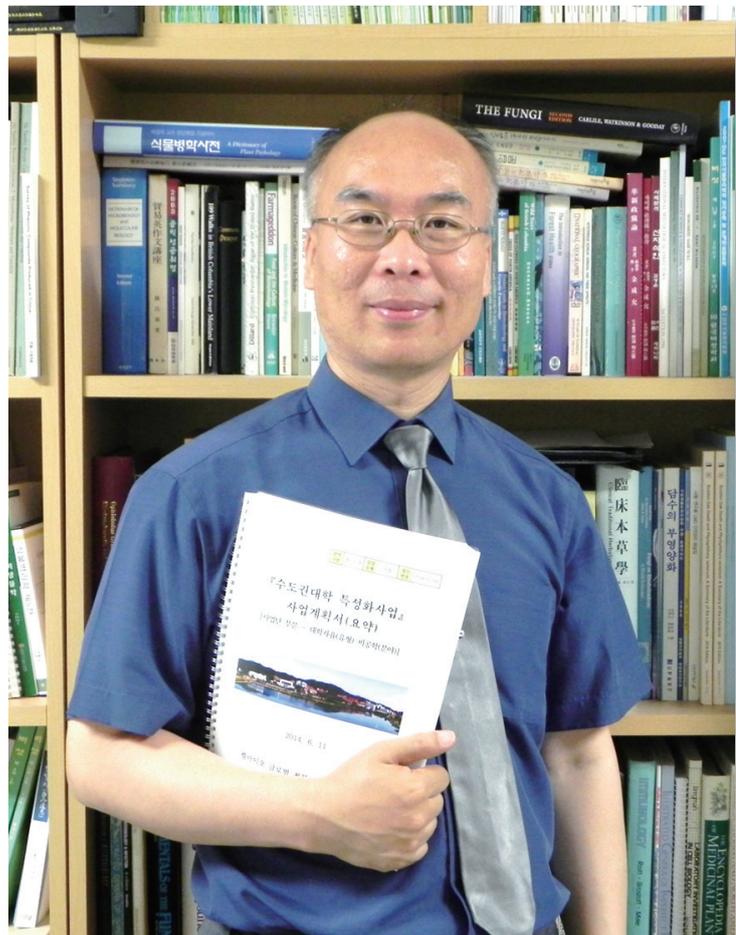
세계를 선도할 컴바이오 전문인력양성



대학 특성화 지원 사업에 선정되며 BT 특성화 산학연연구 클러스터 구축에 컴바이오 교육특성화를 구축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단국대 김성환 단장은 “무엇보다도 본 사업을 통해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멋지게 대학교육을 실현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기쁩니다”라며 사업단 선정 소감을 밝혔다. 단국대 천안캠퍼스의 발전을 견인할 컴바이오 글로벌 전문인력양성 사업단이 꿈꾸는 미래는 무엇인지 김성환 단장을 통해 들어봤다. 취재/임성희 기자

5대 중점 강화 사업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목

컴바이오(Chemistry + BioSciences) 특성화 사업단은 융합을 통한 혁신적 창의교육 역량강화 사업단으로 미생물학과를 중심으로 화학과, 생명과학과, 분자생물학과의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 김성환 단장은 ‘첨단 융복합 지식기반 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가치창조 역량을 지닌 미래지향적 컴바이오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교육비전을 가지고 있



다며 “이를 위해서 교육품질고도화 실현, 다학제 전공융합역량강화, 진로 및 자기개발 역량 강화, 글로벌 역량 강화, DKU 캠퍼스 창조·도전 역량강화 문화 커뮤니티 사업 등 5대 중점 강화 사업프로그램을 수행 할 예정입니다” 라고 밝혔다.

국제교류와 산학협력 통해 차별화된 인재 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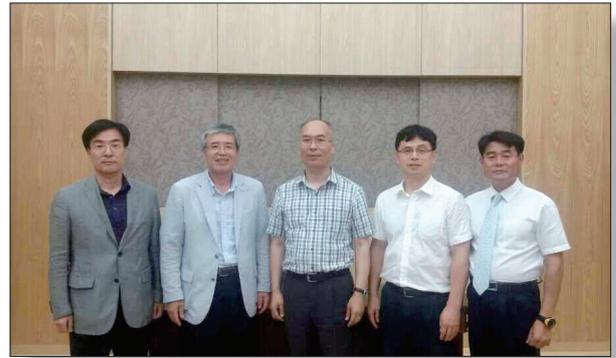
사업단은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캠퍼스 분야 세계 우수대학과 연구소의 과학자를 초청해 세미나, 강의, 해외학생파견 연구체형 등을 진행하고 캠퍼스 글로벌융복합 캡스톤디자인 과목을 운영해 외국계 기업체와 연계하여 교류할 계획이다. 김 단장은 “글로벌 주제 경진대회 및 워크숍, 캠퍼스 글로벌 정보 서핑, 국제학술대회와 박람회 참가 지원, 글로벌 전공 영어 프로그램 지원, 유엔 생물다양성보존 대학생포럼 활동 지원, 다문화가정 및 해외 봉사활동 지원 등 글로벌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라고 전했다.

취업·창업트랙과 대학원진학트랙 운영으로 현장적응력 높여

김성환 단장은 “캠퍼스 산업분야에서 필요한 현장인력은 융합분야의 특성상 학부수준과 대학원수준에서 모두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취업·창업트랙과 대학원진학트랙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했습니다”라며 관련 내용을 소개했다. 취업·창업트랙으로는 인턴십, 현장실습, 캡스톤디자인 등을 비롯해 산업바이오 서비스 및 실습, 특수 분야 자격증 및 관리 실습, 캠퍼스창업설계 및 실습 과목 등이 신설됐으며 대학원진학트랙은 honor thesis, 캠퍼스 실험설계 및 분석, 포스트에듀 프로그램, 글로벌에듀, undergraduate research program(URP)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력이 풍부한 산업체 CEO 및 전문가를 산학협력교수, 초빙교수로 초청해서 교과개발, 강의, 산업체 멘토링, 취·창업지도 및 실무 코칭, 산학공동연구, 산학인력교류, 특성화사업단 운영 활동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선도단국, 감동단국, 소통단국 보여주는 단국대 대담 사업단 될 터

“아름다운 비전이 있는데 누가 시행치 않겠습니까?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면 가지고 계산 능력을 더해 학교발전을 위한 비전을 함께 해 주시겠습니까?”하고 참여를 강조한다는 김성환 단장은 “비전공유와 소통의 리더십을 통해, 변화하는 캠퍼스, 올라가는 단국대학교의 브랜드, 제고되는 학생과 교수, 직원의 글로벌 역량을 함께 일궈 낼 수 있도록 할 참입니다”라고 그만의 운영철학을 밝혔다. 이에 덧붙여 그는 “글로벌 수준의 기초와 응용을 겸비하는 Top-Edu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도단국, 학생만족의 취·창업, 진학, 현장실습, 학사 행정서비스, 시설, 인프라 지원 등 맞춤형으로 수요를 리드하는 감동단국, 지역사회/해외(연구, 봉사, 문화)경험 네트워크, 창의적 리더십, 사회진출 안착 경험 커뮤니티 활동 기반 제공 등 실력과 성과확산을 이룩하는 소통단국 등을 활용 할 계획입니다”라며 차별화된 운영능력을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캠퍼스 프로그램이 있으니 대학생활을 마음껏 즐겨라!”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단국대의 밝은 미래를 제시할 사업단의 행보를 주목해본다. 좌로 부터 문명진 교수, 김욱 학장, 김성환 사업단장, 변중희 교수, 김실 과장



이번 특성화사업단 선정은 미생물학과를 중심으로 화학과, 생명과학과, 분자생물학과 등 4개 학과 교수들의 협조와 노력으로 이뤄진 쾌거다.

많다”라는 말로 사업단 소속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하기도 했다.

“캠퍼스 특성화 교육생태계 구축으로 대한민국 성공모델 만들겠다”

김성환 단장은 “캠퍼스 특성화 분야 교육생태계 구축으로 대한민국 성공모델을 만들고 싶습니다”라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초·중·고·대학생 연계 캠퍼스 글로벌 창조교육생태 네트워크 활동 국가 선도모델 프로그램’을 구축 및 운영 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사업단의 최종 목표는 사업단 참여 학과의 글로벌 스탠다드 특성화교육 기반 마련, 재학생의 취업률 및 대학원 진학을 제고, 역량 인재의 국제 및 지역사회 진출 확대 등이다.

마지막으로 인터뷰를 끝마치며 김 단장은 “먼저 이러한 멋진 교육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에 감사드립니다. 본 특성화 사업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주신 장호성 총장님, 김욱 자연과학대학 학장님, 앞으로도 수고해 주셔야 하지만 계획서 작성을 위해 함께 수고한 문명진, 장원철, 변중희, 윤여홍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저에게 믿고 맡기며 신의와 격려를 주신 미생물학과 교수님들께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라고 덧붙였다. ■